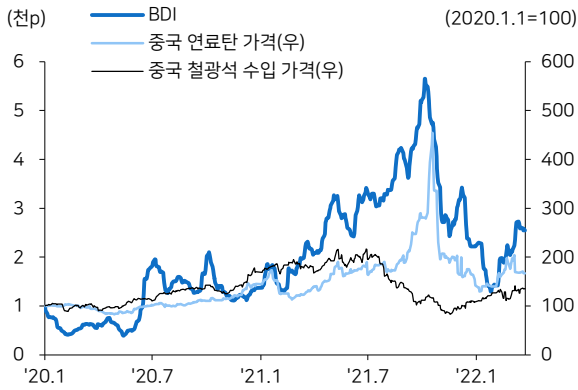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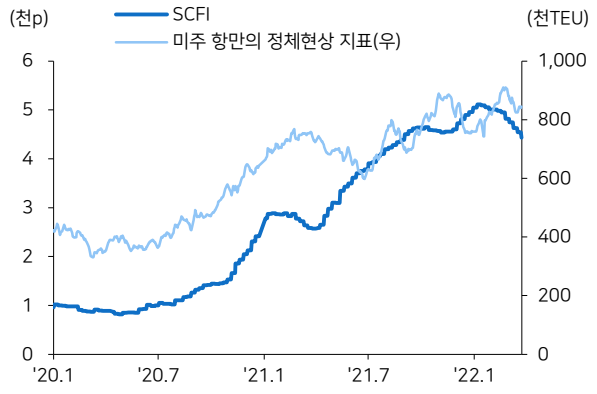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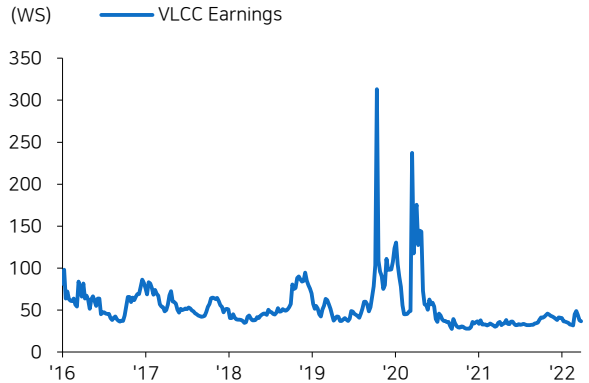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44.0p(-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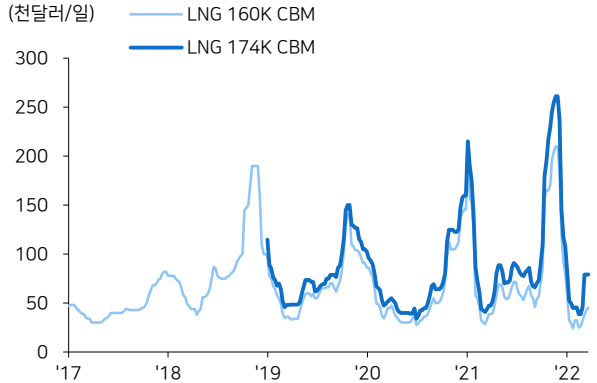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434.1(-106.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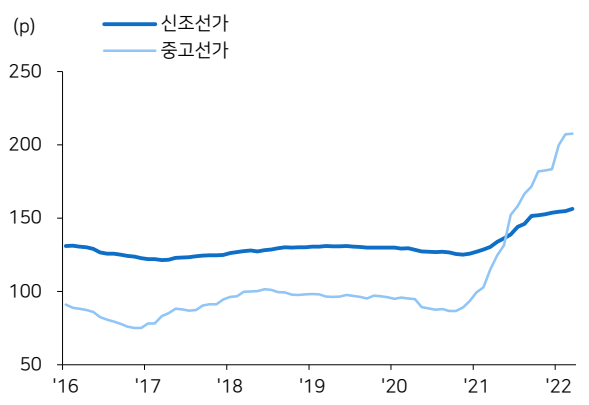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36.5(-1.2p WoW)



LNG Spot 운임 45.3p(+2.8p WoW) 79.3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6p(+0.5p WoW) 207.6p(+0.0p WoW)



항공시장 지표 301.9p(+0.4p DoD) 100.9p(+0.9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사이판 노선 정상화... '좌석판매 70% 이하 제한' 조치 해제

질병관리청이 사이판 노선 직항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제한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됨. 2021년 12월 3일부터 사이판 노선 좌석판매가 70% 이하로 제한된 바 있음. 현재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인데, 에어서울도 3월 30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도됨. (에어진)

Japan axes Russian crude, but limited impact on tankers, brokers say

일본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 계약을 중단했다고 보도됨. 일본 최대 규모인 Eneos Holdings, Idemitsu Kosan 모두 신규계약을 맺지 않고, 중동산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도됨. 4월까지의 기존 계약한 물량을 받음. 선박브로커들에 의하면 일본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중단의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도됨. 현재도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91%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설명함. (Tradewinds)

Clarksons tracks newbuilding prices upwards as orders fall

Clarksons에 따르면 발주량 감소에도 신조선가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174,000CBM급 LNG선은 2월말기준 2.18억달러로 전년 대비 16% 상승함. 한편, 2022년에는 2021년 2,430만DWT보다 많은 2,700만DWT가 폐선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Indian buyers take more Russian crude as Sovcomflot suezmax fixed

인도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됨. Nayara Energy가 1,800만배럴 우랄스유를 수입함. IOC는 3월에도 300만배럴을 유럽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25-30달러/배럴 저렴한 가격에 수입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ave container shipping giants learned the lessons of the down years?

AlixPartners에 따르면 선사들이 누리는 호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고 보도됨. 2023년에는 수급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경고함. 대다수의 선사들은 벌어들인 현금은 미래 연료 전환에 대비해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2023년 신조선이 인도되고, 공급망의 지역화로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러시아 가스 차단 위협에 EU '에너지 공동구매' 대응 나서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보도됨. 가스·수소·액화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구매·비축하는데 합의했다. EU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조지아·몰도바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함.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선 회원국들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이코노미스트)